



"기획은 공정하게! 희망은 다같이!"

다 함께 잘사는 행복만 농어촌

제공일 : 2011. 9. 15.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
과 장 : 임 광 회
사무관 : 박 형 구
전 화 : 500-2373
쪽 수 : 2P
별첨자료 : 없음

이 자료는 2011. 9. 15.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양어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추진

- 2016년까지 양어용 배합사료 사용율 60%까지 확대 -

〈 주 요 내 용 〉

◇ 양어용 배합사료 사용율 2016년까지 60%(21만톤)까지 확대 추진

- “배합사료 시범양식” 및 “지역별 맞춤형 배합사료 공장” 등을 위해 ‘12년 예산으로 75억을 확보·지원 계획

□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해양환경보호와 수산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양어용 배합사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.

□ 여기에는 양어용 배합사료 사용율 2016년까지 현재의 21%(11만톤)에서 60%(21만톤)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.

- 이를 위해 100%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양식하는 성공적인 양식 경영모델 제시를 위한 “배합사료 양식 시범지역” 도입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와 함께,

-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“지역별 맞춤형 배합사료 공장” 설립과 양어용 배합사료의 성분 표시 강화 등을 통해 배합사료 품질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.

□ 또한, 현재의 양식 어가를 중심으로 한 보조금 지원을 지양하고, 배합사료 제조사에 대한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 여건 조성과 가격 안정을 위한 설비 및 원재료 구매에 대한 용자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‘16년까지 배합사료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 412억원의 예산을 투입 예정이고,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으로,

- ‘12년에는 “배합사료 양식 시범지역” 및 “지역별 맞춤형 배합사료 공장” 등을 위한 예산으로 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.

□ 이러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, 생사료 가격급등, 수급불안 등으로 향후 배합사료 사용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면서도 품질에 대한 불신과 생사료 사용 타성으로 인해

- 배합사료 사용을 주저하던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사용이 매년 5~10%씩 늘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